



광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싶다

보훈처 "제창은 국민통합 저해" 국민들 "보훈처가 갈등 부추겨"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5·18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명·호남 등 정치인들이 한 뜻으로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민적 합의까지 거뒀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훈처가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매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트집잡아 5·18 기념식 자체를 파행으로 유도하는 듯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

여야, 기념곡지정 결의안 의결 국민적 합의까지 거친 문제 색깔론 자극해 '제창' 막아 기념재단 "5·18에 대한 선전포고"

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 노래를 제창할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을 위한 행진곡'을 2008년 이전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해야 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 작가)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에 따라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또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시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없이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만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보훈·안보단체들의 주장도 인용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화에 나서도 부족한 판에 되레 5·18을 중북몰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보훈처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김지운(43)씨는 "명색이 정부 기관이라는 보훈처가 이제는 핑계 달 것이 없어서 북한 영화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는 핑계까지 대고 있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보훈처가) 5·18기념식의 파행 자체를 즐기는 듯하다. 더 이상 끌려가면 안된다. 오히려 기념식을 더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기념재단은 보훈처의 공식 입장 표명을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정신이 담긴 노래를 부정하는 것은 5·18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를 폄박했던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5·18 단체는 물론 국회의장의 질문에도 답을 외면했던 보훈처가 내놓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거부를 선언하고 이 노래를 깎아내린 것은 선전포고다. 5·18 35주년 민주화운동 행사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文 "정면돌파" 비노 "文사퇴"

새정치 갈등 갈수록 커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최근 내홍 사태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입장 표명 자료가 흘러나오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표는 14일 오후 고조되고 있는 당내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입장 표명을 준비했으나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보류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표의 입장 표명 자료가 흘러나오면서 당내에서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 4·29 재보선 수습책을 둘러싼 계파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당원에게 드리는 글'의 형태로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표의 계획은 이날 낮 12시께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과 입장 표명 글을 공유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수정됐다.

최고위원들은 "입장표명보다 쏘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만류했으며 결국, 문 대표의 이날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입장 표명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비노(비 노무현계) 진영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다 당내 갈등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 '공천권'과 '지도부 흔들기'가 있다는 친노 진영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이날 입장 표명 자료를 통해 "재보선 패인을 치열하게 따지고 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패배의 책임을 막연하게 친노(친 노무현) 패권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온당한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대철·김상현 상임고문과 이훈평·이철·정한용·천웅택·최종원·홍기훈 전 의원 등 '민주화정포럼'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비노진영 인사가 주축이 된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추모열기 고조

민주묘지 대구 등 전국서 참배객 ... 광주 도심 곳곳 35주기 행사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이 뜨겁다. 14일에도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200여 명이 참배하는 등 전국에서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휴일인 16일에는 5·18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한 민주성지 순례, 오월 여성제, 5·18학술대회, 광주 아시아포럼, 오월문학제 등이 열린다.

17일에는 오전 9시 30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민주화운동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추모제를 시작으로 광주 시민 대성회, 시민난장, 오월풍물극, 민주

대행진 등이 준비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며 참석예상 인원은 2000여명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과 5·18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달빛동맹' 도시인 대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시의회 의장 등 대구시 의정단, 노동일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의장, 대구시민 등 15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 2015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영화제 홍보대사인 강예원·김영호(왼쪽부터)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31개국 103편의 영화를 만나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8일까지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등에서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역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15th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해라, 아리따움, 르까프, 55CHU